

한국 고대 복식 연구방법 試論

박선희

상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1. 고대 복식사 연구의 문제점과 중요성

그간 한국사는 연구와 서술이 주로 정치사 중심으로 편중되어 사회생활사에 대해서는 인식의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사회생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복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대 한국의 복식은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나간 발전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복식에 관해서는 아주 적은 기록만이 남아 있거나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소수 지배계층들의 복식에 대한 기록만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 자료마저 중국의 사서에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은 그 동안 고대 한국 복식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고대 한국 복식사 연구는 한민족의 사회와 문화의 원형을 지니고 있는 고조선시대로부터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가 되었다. 그런 탓에 고대 복식사 연구는 삼국시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결과 한민족의 복식사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식 부족에 말미암은 것이다.

첫째는 고조선과 그 이전 사회의 복식 발전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부족이다.

둘째로 복식발전의 시기 구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다.

셋째로 종래의 고대 한국 복식사 연구에서는 그 시대의 한국과 중국 및 북방 지역의 복식이 충분히 비교 분석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2. 고대 복식사 관계의 기본 사료와 이용 방법

고대 복식의 복원은 사료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채택한 사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의 정도는 그 연구의 성패를 가름하게 된다. 사료에는 문헌사료와 고고자료가 있다.

고대 한국의 복식을 연구하는 데서 사료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데서도 공정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거쳐 다시 종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식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대 한국의 복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중국이나 북방 등 주변 지역의 복식과 비교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들 주변 지역에 관한 사료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복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들 사료들이 대부분 중국의 역사서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의 史書에는 주변국들에 대한 기술에 공정하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의 문헌기록을 사료로 이용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도해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고대 한국 복식의 경우처럼 사료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자료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근래에는 고고발굴과 그 연구가 활발해져 고고학 자료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고대 한민족의 복식을 복원하는 데 이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고학의 자료를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조선시대부터 여러나라시대 이후 사국시대와 삼국시대의 지리범위와 시간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적과 유물의 취급 범위가 결정될 수 있고 같은 시기의 중국이나 북방지역 또는 일본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유적과 유물 자료들은 문헌 사료를 뒷받침 해줄 뿐만 아니라 문헌을 통하여 밝히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주어 고대 한국 복식의 실상을 복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